



곡성 문화

2019년(단기4352년) 8월 15일 / 13호

발행인 곡성문화원장 고광운 편집인 곡성문화원 팀장 배숙영 Tel.061-362-0890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예전처럼 만만한 약소국이 아닙니다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막강한 나라임을 똑똑히 보여줍시다
일본 아베의 경제침략!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나라사랑 돌돌 뭉쳐 대한민국 승리의 길로 나아갑시다**





유근기 군수, 일본 수출규제 총력 대응

- 비상대책반 운영, 수출기업 등 방문 대응상황 점검 -



곡성군수 유근기

곡성군지자체(군수 유근기)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및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특산물 등 분야별 신속대응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도시경제과를 중심으로 비상대책반과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곡성군 지자체는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지난 8월 2일, 가장 먼저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업인 ㈜더블유원을 군수와 관계공무원이 방문해 피해 및 애로사항이 있는지 상황을 조사·점검했습니다. ㈜더블유원은 석곡농공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동차용 과충전 방지밸브·펌프플렌지·보수류 등을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이어 곡성의 대표 특산물인 멜론을 수출하고 있는 곡성멜론(주)과 곡성농협을 방문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앞으로 생산되는 추석멜론 수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군과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가자고 격려·당부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더블유원과 (주)곡성멜론, 곡성농협 관계자와 대책 협의·점검 결과 애로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0일,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간직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개최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규탄대회'를 열었을 때 처음 52곳이 참여의사를 밝혔었는데, 우리 곡성군도 "일본 수출규제 공동대응 지방정부 연합"의 일원으로 적극 참여했습니다. 유근기 군수는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한·일 양국 간 신뢰를 깨뜨리고 국제무역 질서에 반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는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한일 간 경제전쟁을 도발하는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 대응 행동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계획은 '민간부문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본여행 보이콧 등 자발적인 생활실천 운동을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관여·조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구매 또는 임대(조달, 수의계약, 용역임차 등)에 사용하는 품목 중 일본산 제품에 대한 거래를 전면 중단한다. 또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일본으로 모든 공무상 방문은 물론 일본과 자매결연 활동을 중단하는 한편, 일본 경제침탈에 대한 국민 인식 확산을 위해 우리 곡성의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가 깃든 곳을 방문해 일본을 규탄하는 **헬린지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 역시 곡성군민과 향우, 기관·사회단체의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본여행 거부 등의 생활실천 운동에 동참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특히 곡성군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지방세 감면, 주민소득기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앙부처-광역자치단체(전남도)-기초자치단체(군)를 잇는 비상대책반을 편성·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곡성군청 행정과 홍보팀장 박광천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곡성군 의회의장 정인균

지난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전범기업으로부터 강제 동원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 아베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었다."며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 대법원과 정부가 양국 간 신뢰를 깨뜨리고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여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타격을 꾀하고 있다. 이는 오사카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협정 등에 배치되고, 세계 자유경제 무역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다. 급속도로 성장하며 일본 경제를 맹추격하는 우리 경제에 대한 부당한 견제이고 일본 우익 세력의 결집을 통해 개헌이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여 다시 군국주의 군대를 부활시키기 위한 검은 속내이다.

일본 아베 정부는 우리 강도와 우리 민족과 수많은 나라에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주고도 제대로 된 반성 없이 또다시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고 있고,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있다. 일본은 하루빨리 세계보편의 가치에 부합하는 조치로써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피해자들과 전쟁에 동원된 수많은 강제징용·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개인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며, 세계 자유경제 무역질서를 해치게 될 경제침탈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이에 제8대 곡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곡성군민들과 함께 일본 아베 정부의 만행들을 규탄하며 결의를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아베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에 가했던 지난 침략과 수탈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즉각 사죄하라.

하나, 일본 아베 정부는 세계 보편의 가치에 합당한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고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일본 아베 정부는 세계무역질서를 파괴하고 우리 한국을 상대로 펴고 있는 반세계적 무역보복과 경제침탈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우리 곡성 군민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은 상기 된 만행들이 해결될 때까지 일본여행과 일본산 수입 상품 구매를 전면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2019.7.29).

곡성군 의회 의장 정인균, 부의장 조대현, 의원 윤영규, 유남숙, 심인식, 강덕구, 김을남, 의결의 고장 곡성군민 일동



곡성군의회 의사회장 김대중

나라사랑 똘똘 뭉쳐 대한민국 승리합시다

세계에 막강한 코리아의 힘! 기술대폭발시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 예측



구한말 조선은 주변 제국주의 강대국가들의 틈바구니에서 엄청난 침략의 마수에 휘둘려야만 했습니다. 조선 고종(1875)때, 일본 군함 운양호가 강화해협까지 불법 침입하여 한·일간의 총격전이 오고간 충돌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듬해(1876) 일본은 오히려 운양호의 피해보상과 함께 수교를 강요하며 다시 강화도에 무력 입성해, 한·일간의 불평등한 강화도조약(병자수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굴욕적인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개방 이후 한일합병(1910)에서 8·15광복(1945)까지 35년 간 일제강점기의 철저한 민족말살 무단 식민지 통치정책으로 뼈아픈 수난과 시련의 역사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다시 우리 한반도에 일본·중국·러시아 발 난기류가 밀려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본 발 공세는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안보상 우호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시켜 버린 것입니다. **사죄는커녕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한 아베 정부의 총성 없는 경제침략이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최근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5대가 동해 독도 인근 우리 영공을 침범하여 한국전쟁 이후 타 국가에 첫 경고사격을 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북한은 동해상에 미사일을 연일 발사하는 등 안보위협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자국 영토인 독도를 침범했다며 한·러에 동시 항의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대다수 우리 국민들로부터 "100여 년 전 한반도에서 열강이 각축하던 구한말의 데자뷔를 느끼게 된 것 같다."는 푸념과 탄식이 나오는 이때, 우리나라의 현실과 미래를 냉엄하게 조망(眺望)해 봅시다.

최근 국제적으로 이름 있는 기관들이 밝힌 조사 통계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한·일 간의 격차를 보면 "1986년 1인당 GDP는 일본의 16%정도로 후진국이었지만, 2018년에는 일본의 80%대로 추격했고, **수출규모**에서도 일본 세계 4위, 한국 세계 6위의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군사력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워(GFP)가 발표(2019)한 **국방력**도 일본 세계 6위, 한국 세계 7위(Business Insider 지)로 대등하게 나타나는 등, "2019 브랜드 파이낸스 조사결과 **국가브랜드**도 일본 세계 5위, 한국 세계 10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Moody's의 **국가신용등급**이 영국 프랑스와 동급(AA)으로 일본(A+)보다 2단계나 추월했는가 하면, 영국 로이터 통신사에서 조사 발표한 **아시아 최고혁신대학 75'** 가운데 1위 서울대, 2위 KAIST, 3위 포스텍, 4위 칭화대, 5위 동경대로 상상을 뛰어넘는 실력을 과시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현재 **한류팬 1억 명 돌파**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 막강한 '코리아의 힘'을 떨치고 있으니 생물처럼 성장과 소멸을 반복하는 '기술 대폭발시대'에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한국은 약소국이니 일본한테 안 된다는 말만 하면서 열등의식을 갖고 사는 국민이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7천만 대한민국 애국동포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전처럼 만만한 약소국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막강한 나라임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아베정부는 미워해도 일본 나라와는 상생하는 마음'을 갖고, 끈기 있게 단합하고 실천해야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침략!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나라사랑 똘똘 뭉쳐 대한민국 승리의 길로 나아갑시다.**

곡성문화원장 고평은

가깝고도 먼 나라 '한일 갈등', 이제 교육에서 답을 찾을 때



곡성교육장 허성곤

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일본편 1. 규슈, 빛은 한반도로부터)'를 읽고 가슴 벅찼던 일이 생각납니다. 이 책은 일본 속에 피어 있는 고대문화를 이루는데 한국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 도공 '이삼평' 이야기를 통해 1592년 임진왜란의 발발 원인이 조선의 도자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하며, 임진왜란을 '도자기전쟁'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에 있어서도 일본은 우리 한국에 대한 고대사의 열등감을, 한국은 일본에 대한 근대사의 아픔을 갖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일까, 우리는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로 말합니다.

금년 8월 15일은 광복 74주년입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한일관계가 악화되어 초긴장상태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보복 정책에 분개하여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으로써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은 교육부를 비롯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학교의 현장에서 집단지성(集團知性)을 발휘하여 정치, 경제 문제이기에 앞서 올바른 역사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교육문제 해결에 앞장서야겠습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한국사를 기초과목으로 재편성한 것은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허성곤)은 각급 초·중·고 학생들의 일본 수출규제 경제침탈 대응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적 지원을 구체적·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우리교장 곡성의 애국·애족 독립유공자 등 역사적 인물 학습 자료를 제작·보급하여 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그 숭고한 애국정신을 이어받아 고장과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곡성지역의 역사 탐방 및 곡성사랑 체험활동을 통하여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를 배우고 익히는 '올바른 역사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 아베의 경제 도발에 대한 토론·논쟁식 사회·역사수업을 통한 계기교육과 동아리·캠페인 활동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 및 '국산품 애용 운동'에 앞장서 나라사랑 실천의지와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산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대일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내 기술력이 미흡한 신산업 소재 부품·장비 분야의 인재 양성책으로 연계전공·융합전공 학부 신설, 한일 관계사 정립 및 동북아 역사교육협력체제 구축, 역사 인식 제고를 위한 시민강좌 개설, 역사서적 개발·보급 등"의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실정과 초·중·고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과정 재구성·운영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꿈' 신고 유리아 대륙을 달리는 국제교류교육 기회를 다양하게 갖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 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 언제나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갈등과 국가 위기상황 속에서 포용과 열정으로 불행했던 과거사를 성찰하는 가운데 상호 대화와 안보경제협력을 이루어 손에 손잡고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전라남도곡성교육지원청 장학사 김혜경

아! 슬프도다. 신(新)친일파들에게 경고한다. 인간사에 불의(不義)이어든 불행(不幸)일지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침탈에 대응하여 온 국민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견장을 수 없이 번지는 가운데 74주년 8.15 광복절을 맞는 오늘! 내 조국 대한민국을 찾기 위해 사랑하는 부모와 처자식, 형제를 버리고 싸우다 순국하신 선열들을 생각해 본다. **충신열사들의 후손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들은 국가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고 있는가? 충신열사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왜적에 붙어 고루거각(高樓巨閣)에서 호의호식하며, 오히려 독립투사들에게 총칼을 들이대고 동족상잔을 일삼았던 그 후손들은 오늘날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소문에 의하면 충신열사들의 후손들은 만리타국에서 조국을 그리며,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다 겪으면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친일 후손들은 혹은 높은 지위에서 부요한 생활로 인생을 즐기고 큰 소리치며 산다고 하고, 혹은 높은 지위에 있는 자의 가족의 국적은 외국의 국적으로 살고 있고 자기만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는 지금 총성 없는 전쟁 중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들의 자녀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대한민국 군인이 되어줄 수 있겠는가.....?

'아! 슬프도다. 왜적과 싸워 조국이 광복되니 친일 일가들은 행복을 누리고, 항일 순국열사들의 후손들은 궁핍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니.....'

두고 볼지이다. 백여 년 전 만석군(萬石君)의 큰 부자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고관대작(高官大爵)을 지낸 가문들도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 않은가? 그러나 도덕성(道德性)을 잃지 않고 적선을 했던 가문은 그 미담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해 오고 있는가 하면, 왜놈 정권에 붙어서 우리 국민들을 못살게 하고 개인 영달을 꾀하여 고관대작(高官大爵)에 오른 그 사람들의 잘못은 지금도 전해져 오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사에 제일 무서운 도덕적 율법이라고 생각한다.

신(新)친일파들에게 경고한다. '一古語(일고어)에 一失足令千古恨(일실족해 천고한)이란 말이 있듯이 잘못된 행실을 일삼으며 머물다간 발자취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워지지 않는 오명으로 남는다는 것을 알지이다. 누구의 부모가, 조부모가 무엇을 어떻게 적선(積善)했다는 말을... 이렇게 잘하고 잘못된 일들이 계속 후세에 전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육신은 언제인가는 죽어 없어져도 그 사람의 행적은 영원히 전해오지 않는가?

이것이 역사가야 싶다. '도덕(道德)이라 함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평소 귀한 줄 모르고 숨 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과 같다. 고관대작(高官大爵)이건 여러식은 우생(遇生)이건 간에 산소가 없고 물이 없다면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도덕성(道德性)은 우리 인간이 꼭 반드시 지켜야 할 근본(根本)이다. 수 천 년이 가고 수만 겁이 지나도 변치 않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과 동해 바다와 같이 변해서는 안되는 게 있다. 바로 인간의 윤리관(倫理觀)이다. 사랑하는 그대들이여! 평화(平和)를 빌면서 이르니 **적선지기(積善지기)일유여경(積善之家必有余慶)이요, 인간사에 불의(不義)이어든 불행(不幸)일지이다.**

대한노인회곡성군지회 노인회장, 연운당 주인 류종표 삼가

곡성경찰, 태안사작전 영웅! 전몰경찰관 위령제 개최 - 민갑룡 경찰청장, 6.25 태안사 작전 희생 경찰관 참배 -



곡성경찰서장 임태오

곡성경찰서(서장 임태오)는 8월 6일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소재 태안사 내 경찰충혼탑에서 민갑룡 경찰청장과 김남현 전남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주승용 국회의장, 이정현·정인화 국회의원, 유근기 곡성군수, 정인균 군의회의장, 경찰 가족, 유가족, 참전동지회, 곡성군 기관·사회단체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9주기 태안사 작전 영웅! 전몰경찰관 위령제를 가졌다. 위령제는 헌화와 분향, 추도사, 추념사, 진혼시, 진혼무 등 순으로 진행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추도사를 통해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태안사작전 전몰경찰관 위령제는 곡성지역을 사수하기 위해 북한군과 격전 중 전사한 경찰관 48명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1950년 6.25전쟁 당시, 고(故)한정일 경찰서장(총경)은 북한군이 7월 26일 순천·여수를 점령하자 상부로부터 퇴각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주민들을 뒤에 두고 철수할 수 없다"며 7월 29일 경찰과 의용대원 520명을 이끌고 적의 접근로에 매복한 뒤 기습공격을 가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곡성경찰의용대는 북한군 52명을 사살하고 3명을 생포하는 승리를 거뒀다.



민갑룡 경찰청장 분향 장면

북한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구레 방면으로 퇴각하고 말았다. 북한군은 곡성경찰의용대가 구레-하동 간 도로를 장악하고 있어 낙동강 전선으로 이동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북한군은 곡성경찰의용대 작전지휘소가 태안사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 1개 연대를 동원해 8월 6일 새벽 기습공격 해왔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으나 48명의 경찰관과 의용대원이 전사했다. 또 200여 명이 부상당했다.

곡성경찰의용대가 북한 정규군을 상대로 거둔 승리는 사기가 떨어진 국군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높여주었으며, 낙동강 전투 승리에 혁혁한 공을 세우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

곡성문화원 실장 배숙영

아! 가슴아프다. 친일파들에게 경고한다.

'대한민국에 근대화란 없었다. 오로지 '민족말살정책만 있었을 뿐.....'

광복절은 35년간 일제에 의해 잃었던 나라를 되찾은 날이다. 올해 맞이하는 74돌 광복절은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침탈에 온 국민이 함께 땀땀 땀 땀을 흘리며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광복의 의미를 새롭게 새기며 오늘을 돌아보는 뜻 깊은 날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전하고자 한다.

지금도 아베정부는 일제 강점기를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앞당긴 시기라고 말한다.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 친일파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근대화란 무엇인가?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제국주의가 극에 달한 일본이 강압적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우리의 문화는 '후진 것'이라 말하며, 자신들의 '선진 기술'을 받고, 우리의 '후진 문화'를 버리라는 시기다. 결국 일본은 우리 문화를 갈갈이 찢어버리고 근대화·산업화란 명목으로 우리나라를 군수 물품 기지(基地)로 만들어버렸다. 심지어 우리 백성을 강제 징집하고, 어린 여성들까지 정신대로 끌려가야만 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 일본의 무단 식민통치 아래 일본의 노예가 된 것이다.**

일제는 우리의 말도 못하게 하고, 우리의 놀이도 못하게 하고, 우리의 노래와 춤, 문장, 그림, 의술 등 우리 민족의 삶 속에 배어있는 5,000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송두리째 앗아간 **'민족말살정책'**만 있었을 뿐이다. **이 모든 것이 일본의 근대화 정책인데 아직도 일제시대가 우리 문화를 앞당긴 시기라는 친일 반민족 무리들이 있으니 가슴이 아프다.**

"조선이라는 땅, 한국은 일본이 지배하면서 이렇게 잘살게 된 것이다. 일본 덕분에 한국이 발전한 것이다"라는 일본 극우 세력들, 또 한국 내 뉴라이트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식민지 근대화론'이다. 그렇게 험한(嫌韓)을 소재로 쓴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만해 한용운 상을 수상하러 온 일본의 저명한 역사학자(행동하는 양심)인 와다 하루키도 교대 명예교수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논의는 전혀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민둥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 줬고,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교육을 보급시켰다는 이야기는 식민지를 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당연히 한 것이다. 교육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병사로, 노동자로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조선은 비록 식민지 지배를 당했어도 독립적인 위대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었다. 그런 민족의 역사를 부당하게 말살시키거나, 동화시키거나, 굴복시키려 한 것이 일제 민족에게 남긴 정신적, 문화적 상처를 지울 수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9.08.15)

그런데 2008년 뉴라이트가 내 놓은 일본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는 "일제시대 덕분에 대한민국이 발전했으며,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광복절도 건국절로 바꿔야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가 없는 뉴라이트 근·현대사 교과서 2008.03.24.", "한국판 후사 교과서...친일 변호 책자일본" 2008.03.24., "선생님, 이걸 다른 나라 교과서인데요?" 2008.03.24., 뉴라이트 교과서의 반민족성, 2008.03.25., 日요미우리 "뉴라이트 교과서, 일제 찬미" 2008.03.30.)

아! 가슴 아프다. 일제 강점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민족말살정책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일본 고등학생들은 여전히 "끼리끼리 위안부 한 명도 없다. 한국과 일본 간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합의됐다"고 기술된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다 하니... 현재 한일 위안부 합의(2015.12)는 사실상 파기된 상황이다. 출연금 10억엔 반환 및 합의 파기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는 고교생들에게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세종=이천종 기자, 2019. 08.16)

잃어버린 문화를 다시 찾아가 얼마나 어려운지 친일파들은 모른다. 그러기에 전통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힘든지 그들은 모른다. 그뿐이랴, 우리의 것도 모르면서 그저 선진국을 맹신만 한다. 참으로 슬프도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사람이기에, 아직 씻지 못한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에서 진정한 자주독립을 이룰 것이다(출처/ 별명창작소).

한국의 근현대 역사! 그 상처 난 역사의 치유, 결국은 우리 한국인 스스로의 몫이다. 다시는 부서지지 않는다(스타브레드, 고통이 지나간 자리, 당신에게 무엇이 남았나요?).

친일파들에게 경고한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으면 방종과 매국을 버리고 다시 태어나라. 새롭고 친린하게 태어날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를 위하여!!!

(전) 곡성중학교 교장, (현) 곡성문화원 이사 이수열



일본, 한국 수출규제 경제 침략 웬말이나

일본과 한국은 서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며 지난 60년 넘게 분업과 특화를 통해 상호 보완적인 산업 및 무역구조를 형성하여 글로벌 밸류체인의 핵심국가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일방적으로 2019년 7월 1일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경제 분야에서 일본과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으나 일본 정부가 발표한 **수출 규제조치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이며, 일본 측 수출통제가 WTO 협정상 근거가 없는 조치를 지적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세계 무역기구의 규칙에 맞다. 자유무역과 관계가 없다. 국가 간 신뢰 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수출 규제 발생원인 -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수출심사 우대국가) 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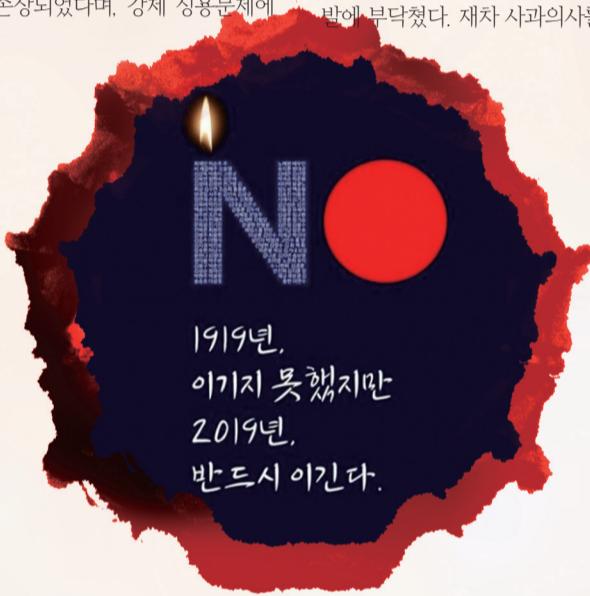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

2018년 10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당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배상하라**라는 원심판결을 내렸다. 당시 일본은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며 반발하였다.

한일청구권협정 제 2조는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일본법 제144호는 “일본 내 한국인의 모든 채권채무는 소멸했다.”고 명시되어있다. 이를 근거로 일본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2019년 1월부터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정부 간 협의 요청을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응하지 않고, 일본 측에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고 협상안을 제안하였지만, 일본 정부는 거부하였다. 그 이후 아베정부는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보복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7월 18일을 기한으로 강제징용 관련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으나 더 이상 응하지 않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일 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되어 적절한 수출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규제 원인으로 뽑았다. 일본 관점에서 한일 간의 신뢰가 심각히 손상되었다며, 강제 징용문제에 대해 한국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무역관리도 안 지킬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대한민국 수출관리 운영조치(일본의 소재 수출규제 내용)를 발표했다. 특정 품목의 포괄수출허가제에서 제외, 개별 수출허가 신청을 통해 수출심사 강화제**로 변경된 것이다. 바뀐 규정에 따라 계약 건별로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한국에 수출하고 싶은 기업이 제품명, 수량, 판매처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해 경제산업성에 제출해야한다. **허가 신청과 심사까지 통상 9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에게만 해당되는 조치**이다. 결국 아베정부는 현재 일본의 “수출무역 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 국가-일본의 안전보장 무역 관리제도에 의해 수출관리 우대국)에서 대한민국을 제외시켜버렸다.**

특히 개별 수출허가제 3가지 특정품목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첨단의 파워를 자랑하는 반도체(리지스트, 불화수소 에칭가스)와 디스플레이 제조(플루오린폴리이미드)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이기 **에 대한민국만을 겨냥한 수출규제 조치로써 경제보복이요, 경제침탈이며, 경제도발임**에 분명하다. **사죄는커녕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를 빌미로 한 아베 정부의 충성 없는 경제침략이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인가?**



한국 반도체산업에 미치는 영향 - 한일 양국 간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화 문제-

반도체 제조업체는 한국의 주력산업이다. 반도체 제조장치의 수출로 일본은 세계 점유율의 3분의 1정도 차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리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폴리이미드 3개 품목의 대한민국 수출 및 관련한 제조기술 이전에 대해 포괄수출허가제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품목들은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70~90% 이르고 한국 기업들은 일본 의존도가 높아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전후방 산업으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단기적으로 반도체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으나 규제 장기화가 될 경우 한국의 IT 산업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일본 조치가 심화할 경우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 체계 및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국제 분업시대로 각국 간에 분업 체계 질서가 구축되어있고 강점이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한국의 첨단산업은 일본기업의 부품 및 소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많다. 경제보복이 장기화가 되면 한국 반도체 산업에 문제가 생기며 양국 간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화 문제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일본 외에 다른 수입료를 모색하며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소재 개발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자력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우리 한국 정부는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WTO 협정과 국내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내산업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려는 조치들을 취하는 게 급선무이다.

(쉽게 알아보는 일본 수출규제정리, 통상교섭본부)

“일본 수출규제는 명백한 경제 보복... 철회 않는다면 반드시 상응조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이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라며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섰다. 아울러 외국인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우대 대상인 화이트(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일본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에 대해 경제침탈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며 “보복 조치는 국제법에 위반되기에 철회되어야 한다. 수출 규제가 계속 시행된다면 한국 경제뿐 아니라 일본에도 공히 피해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다자적인 자유무역에 기반한 WTO 협정을 위반

하는 것이자 G20 오사카 정상 선언문과도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경우 당연히 WTO 판단을 구해야하기 때문에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강성도 기자)

우리 국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 - ‘3.1독립운동 100년과 맞물려’.

불매운동 품목 현황, 견잡을 수 없이 커지는 아베정부 반일 감정의 불씨

국민들은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예매했던 비행기표를 줄줄이 취소하면서 일본도 후폭풍에 휩싸였다. 일본 불매운동 포스터를 만들어 공유하고, 일본 제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다. 일본 불매운동으로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일본 영화도 영화관에 올라갈 수 없게 됐다. 일본 수입액주도 매출이 크게 떨어졌다. 일부 소매점들은 일본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로 촉발된 양국 갈등이 수위를 높여가면서 시민들 중심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아사히맥주와 유니클로 등 대표적 일본 제품으로부터 비롯된 일본 불매운동이 이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식품류에서 업종과 품목을 가리지 않고 번지고 있다. 여행은 물론 일본 애니메이션, 심지어 약사협회까지 나서 일본산 약품은 팔지 않겠다고 한다. 단기간의 반짝 운동이 아닌 확실하게 장기전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반짝하고 말 것이라던 일부 언론들과 일본 우익들의 예상과 달리 시민들은 “싸움은 국민이 할 테니 정부는 정공법으로 나가라”**는 격문성 글을 공유하는 한편 불매운동 사이트를 열어 일본 상품과 대체품 현황을 업데이트 하는 등 조직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불매 운동이 이처럼 식을 줄 모르는 데는 일본이 과거 반성은커녕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무역도발로 보복한 것도 모자라 **불매운동을 폄하**한데도 있다. 유니클로 일본 본사가 ‘한국 불매운동이 장기간 이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가 곧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재차 사과의사를 밝혔지만 오히려 불매운동에 불을 붙인 격이 됐다.

국내 언론도 한 몫 거들었다. 특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일본 어판을 교묘하게 번역해 일본 내 험한 세력들에게 논리로 제공했다는 믿기 힘든 사실도 국내 소비자들을 화나게 했다.

일부 정치인들과 지식인이라고 하는 한국 사회 내부의 일부는 일제가 이 땅에 심어놓은 친일파 의식으로 무장당해 일본 측 논리로 일본 불매운동을 이성적이지 않은 행동쯤으로 치부했다.

한술 더 떠 그들은 점만 빼며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가르치려 들었으니 오히려 불매운동에 불을 지른 격이 됐다.

지금의 불매운동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국민적 금 모으기 운동**과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당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국민들이 모았던 금이 실제로 도움이 되고 안됐고를 재삼 거론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장롱 깊숙이 묻어뒀던 아이들의 돌반지까지 꺼내 한 푼이라도 보태려했던 국민들의 의지는 분명 정책을 담당하는 이들에게 자국이 됐음은 분명해 보인다.

일본불매운동이 일본에 대한 경제적 타격에 산술적으로 계산해 득실을 따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도. **국민들의 자발적 운동**은 그 이상의 영향과 압력을 주는 데 큰 효과를 거둘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외교적 결례를 넘어 무례를 범한 안하무인적 행태는 국민들 감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고노는 한국 대사의 발언 도중 말을 끊는 결례를 범하기도 했다. 곧바로 공식적 담화를 발표해 추가 보복까지 들먹이며 도발에 나섰다.

급기야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논객인 구로다 가스히로 산케이신문 논설위원 겸 서울지국장 이 한국의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 구로다는 칼럼에서 한국에서 자주 나타나는 ‘반일 애국 증후군’의 일종이라며 “실제 행동 보다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싶어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폄하했다. 실제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기보다 인터넷상에서만 떠들다 말 일시적인 행위 정도로 보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에 국내 소비자들은 또 다시 분개했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일본제품 불매운동 확산 ‘일본 불매’ 한 달 여파..일본행 항공편, 주당 5만석 급감

항공 업계, 일본 노선 없애거나 축소부산-대마도 오가는 여객선 2척 운항 중단

“**사지 않겠다, 가지 않겠다. ‘노 재팬’**이라는 구호로 시작된 일본 불매 운동이 벌써 한 달 정도가 지났다. 처음엔 여행을 취소한다거나 일본 맥주를 사지 않는 정도로 시작했다. 시간이 갈수록 소셜미디어를 통해 범위가 넓어지고 그 방법도 정교해지면서 소비자들은 이제 일본산 원료가 들어가 있는 지까지 가려내고 있다. 일본 지방 도시를 찾는 한국인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다.

“한국인 관광객은 잘 안 보이네요. 최근에 잘 안 보여요.”

일본 미가이현 휴게소 주차관리인의 말이다. 여행 거부 움직임이 커지자 일본행 비행기도 급감했다. 여행 거부 움직임이 커지자 일본행 비행기도 급감했다. 항공사들이 앞 다퉈 노선을 없애거나 작은 비행기로 바꿨기 때문이다. 항공사 7곳을 조사해보니 티웨이 항공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1주일에 약 1만 4,000석이 감소했다고 한다. 그 밖의 항공사도 일본 노선을 점차 감축하면서 총 5만석이 넘게 사라졌다. 단순히 계산하면 한 달에 약 20만석이 줄어드는 셈이다. 대신 항공업계는 중국, 동남아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하늘 길뿐 아니라 바닷길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일본을 오간 사람들은 지난해보다 33% 줄었다고 한다. 대마도를 오가는 여객선 2척은 아예 운항을 중단했다. 해외 여행은 보통 미리 계획을 하는데 일본행은 갈수록 예약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행 항공편과 여객선 모두 사라지는 좌석수가 더 많아질 전망이다.

(출처/성화선 기자)

식민지배 불법성 인정 않는 아베 정부 비판 '붐물'

야스쿠니 반대 도쿄 촛불행동, '식민지 책임' 심포지엄
"후기 식민주의 체제 반복..1965년 이전 인식으로 후퇴"

"강제동원자, 재판 없이 총살당한 사례도"

김세은 변호사 "국가 간 약속 때문에 피해자 침묵해야 하나"

"지금 한일 관계에서 최대 문제는 아베 정부가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촛불행동 일본실행위원회 등 한일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야스쿠니 반대 도쿄 촛불행동'은 8월 10일 도쿄 재 일본 한국YMCA에서 '지금의 야스쿠니와 식민지 책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일본 지식인들과 한국의 시민운동가들은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 등을 살펴보고 해법을 강구하는 데 머리를 맞댔다.

다카하시 데쓰야(高橋哲哉) 도쿄대 교수는 '식민주주의의 중단'이란 발제를 통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부인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현 일본 정부의 성격을 '포스트 콜로니얼리즘'(후기 식민주의)로 규정했다. 그는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로 부각된 것이 바로 한국 및 조선 문제에 대한 아베 정부의 인식이라며 아베 정부는 한국의 식민지배를 사실상 정당화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아베 정부의 행보는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총리 등 역대 일본 총리들이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해 사과했던 것과 대비되는 것이라며 그런 연장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한국 대법원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베 총리는 전후 70년 담화나 위안부 한일 합의에서도 "우리나라의 식민지 지배"라는 표현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이는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의 일본 정부 인식으로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식민지배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이 종래의 일본 정부 의견이었다며, 개인청구권에 대한 해석을 변경하는 것은 국제법상이나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제동원 진상규명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역사연구가인 다케우치 야스히토(竹内康人) 씨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의 손해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전쟁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고 시민의 정의를 실현한 판결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다케우치 씨는 청구권협정이 규정한 청구권 해결의 의미는 아베 정부가 해석하는 것과 달리 정부의 외교 보호권(외국에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권리)을 서로 포기한다는 의미이지 개인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일제의 강제동원 실태를 설명하면서 인권유린은 물론이고 재판 없이 총살당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런 사례는 징용이 단지 기업과의 고용 관계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불법성을 강조했다.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 사법재판에 대한 비판을 중단하고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원고 측과 피고인 일본 기업 간의 협의에 개입하지 말고, 청구권협정이 피해자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되면 그 장애를 극복할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한일 공동의 재단·배상기금 설립안도 제시했다. 한편 다케우치 씨는 독일기업이 강제노동 피해자들과의 화해를 위해 '기억책임미래' 재단을 만든 것처럼 화해를 목적으로 한 재단·기금의 설립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인식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제철 강제동원 소송 원고 측 대리인인 김세은 변호사는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270여명의 일본인 방청객들을 상대로 대법원판결의 의의를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 "야스쿠니, 위안부, 강제동원 등에 공통된 것은 국가의 행위로 고통받는 개인이 있다는 점"이라며 "인권 문제로 고통받는 개인들에게 눈길을 주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일본은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데, 지금 목소리를 내는 쪽은 한국 정부가 아니라 과거에 고통 받고 지금은 높은 사람들"이라며 "국가 간 약속 때문에 피해자 개인이 어떤 주장도 못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이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과정이 일본과 한국 사회에서 펼쳐졌으면 한다"며 "대법원판결은 일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해결 못 한 것을 제대로 얘기해 해결의 기회로 삼자는 것"이라고 이해를 호소했다.

도쿄=연합뉴스 특파원 박세진

"아베, 위안부 문제 사죄하라!" '수요 집회' 日

도쿄-오사카에서도 연대 집회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사죄하라! 사죄하라!" 2019년 8월 14일,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히비야(日比谷)공원 앞 300여 명의 일본 시민들이 도로로 뛰쳐나와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이들은 약 1.5km 구간을 행진하며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과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수요 집회'의 1400회 돌파를 기념하기 위해 세계 연대 집회 형식으로 서울과 함께 일본 도쿄에서도 열렸다. 특히 이번 집회에서는 위안부 문제 뿐 아니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보상 문제, 최근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최근 한일 간 이슈 전반을 해결하라는 구호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집회 참가자들 중 상당수는 20, 30대 젊은층이었다. 심지어 10대도 있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접했다는 일본의 한 대학생(22)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를 마주해야 꼬인 한일 관계가 풀린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집회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집회에 앞서 공원 내 히비야 컨벤션홀에서 열린 포럼에서도 젊은층의 참여가 눈에 띄었다. 학창

시절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이들은 올해 3월 위안부 피해자들을 취재해 온 작가 가와타 후미코(川田文子) 씨와 함께 한국을 방문해 위안부 문제를 배우고 돌아왔다. '강제연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대학생 니즈마 사쿠라 씨(24)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보여주며 "가족을 위해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어린 소녀들을 속인 것은 명백한 사기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며 "강제연행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말은 완벽한 페이크(거짓)"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일본 정부의 사죄 및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발표한 대학생 구마노 코에 씨(19)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다 사망하면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인식이 너무 무섭다"며 "일본 정부의 사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점'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진실된 사죄라고 믿을 때까지 하는 '선'이 돼야 한다"며 날카로운 인식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도쿄 인근에서 한국어나 아시아 역사를 배우는 대학생 308명을 대상으로 벌인 자체 설문 조사 결과도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일본 내 중

고교 역사 수업에서 위안부 문제를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전체의 69%가 '필요하다'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 됐다. 그러나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에 사과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45%가 '그렇다'고 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젊은이들의 인식이 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날 오후 7시에는 일본 2대 도시 오사카의 변화가 난바(難波)에서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NO아베' 집회가 열렸다. 입헌민주당의 오쓰지 가나코(尾かな子) 의원은 "아베 총리의 잘못된 역사 인식이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다"며 한국어로 "한국과 일본은 친구"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준수할 것을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측에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위안부 합의는 국제 사회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판을 서로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통신이 전했다.

도쿄=김범석 특파원, 오사카=김민지 채널A기자

일본이 '한 방' 먹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우리 대법원이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018년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이 이춘식 할아버지(98)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05년 소가 제기된 지 13년 만의 결론이다. 강제징용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이번 판결의 중심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이희자 공동대표가 있다. 이 대표는 연로한 피해 할아버지들과 20여 년간 소송을 이끈 주역이다. 고(故) 여운택·신철수 할아버지와는 1997년 일본 오사카 법원에 처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때부터 함께했고, 이춘식·고 김구수 할아버지와는 2005년 국내 소송 때부터 연을 이었다. 오랜 소송에 지친 할아버지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준 것이 그였다. 10월30일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역사에 한 획을 그은 판결이 확정됐다. © 시사저널 최준필, 법무법인 해마루도 빼놓을 수 없다. 해마루 소속 변호사들은 13년간 이어진 국내 소송에서 할아버지들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모든 재판을 준비했다. 시작은 장완익 대표변호사와 김미경·장영석 변호사가 맡았지만, 마무리는 후배 변호사인 김세은·임재성 변호사가 했다. 최종 판결이 나온 날 이춘식 할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글썽인 것도 후배 변호사들이었다.

출처/ 시사저널

日 강제징용 피해자단체 제73주년 광복절...옛 일본대사관 앞에 펼쳐진 대형 태극기

제73주년 광복절인 2018.8.15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제강점기 피해자 전국 유족연합회 회원들이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정당한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친 뒤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아픔과 슬픔, 고통, 분노를 치유해줄 시간도 많이 남아있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유족과 생존자들에게 최소한의 법적 배상이라는 도리를 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연합뉴스 임현정 기자



'일제 강제동원! 그 알려지지 않은 역사!' 책

우리는 안중근도 알고 김구도 알고 조선의열단도 안다. 그러나 힘없이 스러져간 수백만 명의 강제동원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 한일합방에 반대한 열사의 비장한 자결에 대해 알지만 전 민족의 비참한 수난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무심하다. 위안부 동원과 징병 등에 관해서는 그나마 기록이 있는 편이지만 징용 부문에 대해서는 기록도 부족하고, 국민적 관심도 매우 적다. 특히 강제동원과 착취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오늘날까지 대기업으로 승승장구하는 일본 기업들도 많지만, 그들에 대한 분명한 기록은 드물다.

이 책은 1939~1945년까지 태평양전쟁 때 일본 홋카이도에서부터 러시아 사할린까지, 일본 본토의 탄광에서 남양군도까지 조선인 노무자를 강제로 동원하고 작업시키고, 죽게 하고 다치게 했던 작업장을 중심으로 한 현장 르포다. 일제의 침략전쟁에 동원된 조선인 노무자는 연인원 600만~700만 명, 이 중 10만~20만 명, 많게는 50만 명이 작업장에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인간적인 대접 속에 다치게나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그들에 대한 조사는 극히 미흡했다. 여기에는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입으로는 '양국 간의 미래를 열어 나가자'고 하면서도 과거사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일본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

1939년경, 일본 대기업들은 침략전쟁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군수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한다. 대기업들이 고용한 브로커들은 조선 현지로 나와 모집 활동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노무자 인솔부터 작업장 관리까지 기업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 책을 지은 이들은 조선인 강제 동원지로 알려진 나가사키 조선소, 미쓰이 탄광 등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언과 자료를 찾는 데 주력했다.

지은이/김호경, 권기석, 우성규



곡성의 자랑스런 독립운동의 역사를 되돌아 보며...!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년, 8.15 광복 74돌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일제 강점기 암울했던 시절, 오직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한 평생을 바친 수많은 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그 숭고한 애국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재 다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

우리 곡성문화원은 독립유공자들의 공훈을 기리고, 그 정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의절의 고장 곡성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돌아보았다.'

일본 아베정부의 과거사 사죄는커녕 총성 없는 '수출규제 경제침략'으로 한반도 주변정세가 엄혹하기 짝이 없다. 온 나라가 비상사국 불매운동 등으로 제 2의 자주 독립운동이 활화산 처럼 일어나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을 다시 한 번 떠올리며, 나라를 되찾기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한 항일독립운동 선열들의 뜻을 받들어 온 군민이 뚝뚝 뭉쳐 대한민국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곡성군 독립운동 유공자 정보(2019년 8.15 현재)

순	이름	운동계열	포상년도	포상훈격	수록정보	비고
1	김기순 金奇旬	국내항일	2019	애족장	2020 예정	옥과 이문
2	김기원 金基元	의병	2005	애국장	16권(2006)	죽곡 고치
3	김성언 金成言	의병	1995	애족장	12권(1996)	오곡 침곡
4	김영학 金永鶴	국내항일	1990	애족장	9권(1991)	석곡 덕흥
5	김용표 金容杓	국내항일	2005	건국포장	16권(2006)	옥과
6	김재룡 金在龍	국내항일	1990	애국장	8권(1990)	입면 입석
7	김학삼 金學三	의병	2014	애국장	22권(2016)	곡성
8	노임수 盧琳壽	의병	1977	독립장	1권(1986)	죽곡 태평
9	박수창 朴秀昌	3.1운동	2019	대통령표창	2020예정	곡성읍
10	손학곤 孫學坤	의병	2014	애국장	22권(2016)	곡성
11	신문선 辛文善	국내항일	1990	애족장	9권(1991)	오산 울천
12	신유선 辛有善	국내항일	1993	대통령표창	11권(1994)	곡성
13	신정백 申正栢	의병	1968	독립장	1권(1986)	죽곡 남양
14	신정우 申正雨	의병	2007	애국장	17권(2009)	죽곡 남양
15	신태윤 申泰允	3.1운동	1991	애국장	3권(1987)	오곡 오지
16	안자정 安子精	의병	2003	건국포장	15권(2003)	오곡 오지
17	안재창 安在昶	의병	2016	건국포장	23권(2017)	오곡 오지
18	양원모 梁遠謨	의병	1996	대통령표창	14권(2000)	목사동평리
19	유건영 柳健永	의병	1990	애국장	1권(1986)	오곡 오지
20	유인수 柳寅秀	의병	2001	건국포장	15권(2003)	옥곡 덕산
21	유해용 柳海瑠	의병	1993	대통령표창	11권(1994)	곡성 장선
22	윤정구 尹正九	의병	1990	애국장	1권(1986)	고달 목동
23	이기원 李起元	의병	2007	애국장	17권(2009)	목사동, 읍 죽동
24	이종협 李鍾俠	의병	2007	애국장	17권(2009)	죽곡 고치
25	장기문 張基文	광복군	1990	애족장	9권(1991)	석곡 봉전
26	정재건 鄭在健	계몽운동	1991	애국장	1권(1986)	입면 약천
27	조영선 趙泳善	의병	1990	애족장	1권(1986)	오곡 오지
28	조옥희 曹玉姬	3.1운동	2003	대통령표창	15권(2003)	옥과 수피아여고
29	조우식 趙愚植	의병	1991	애국장	1권(1986)	오곡 오지
30	한방섭 韓芳燮	국내항일	2007	애족장	17권(2009)	석곡 덕흥

호남출신 '항일투사 36인 문건' 108년 만에 발굴 "곡성서 이평국 3父子, 순천서 조명근 등 항일투쟁"

한말 을사늑약(1905년) 이후 지리산 일대에서 일본군에 맞서 싸운 곡성출신 항일투사 배준필(裴俊必) 부자(父子)와 남원출신으로 곡성군 죽곡면에서 강사과 고광순·고광문과 함께 활약한 의병장 이평국(李平局) 3부자(父子) 등, 호남출신 항일투사 36명의 활약상과 인적사항이 기록된 문건(당시 일본경찰의 보고서, 1907)이 경남 하동군의 '정재상' 향토사학자에 의해 108년 만에 밝혀졌다.(2016. 2. 28.) 이번이 문건을 공개한 지리산권 우리문화연구소 정재상 소장(50·전 하동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장)은 "국가기록원에 소장중인 조선총독부 문서 '폭도에 관한 편책' 전남경찰부장의 보고서(1908년)와 전북 남원경무부서장의 보고서(1907년) 등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호남출신 항일투사 36명에 관한 인적사항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평국 의병장이 곡성군 목사동면 효대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당시 일본경찰의 보고서(1907년) 문건에는 출신지 별로 주소, 성명, 나이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지리산 일대에서 활약한 항일의병 36인 명부(주소는 당시 원적지임)는 다음과 같다.

▶곡성출신(20명: 독립유공자의 후손과 정보를 아시는 분은 곡성문화원으로 연락바랍니다.)

배재용(오지면 압록리·30), 김국위(석곡면 담파리·40), 신용섭(석곡면 창기리·20), 김문삼(오지면 두동·30), 박득성(오지면 기봉리·25), 김영심(오지면 대리·30), 강막동(오지면 대리·25), 박중화(목사동면 죽임리·40), 강○1(오지면 두동), 강○2(곡성군 오지면 두동), 배준필의 아들(목사동면 구룡리·20), 양보신(목사동면 구룡리·45), 이초립(죽곡면 고치리·25), 강창욱(죽곡면 고치리·22), 김인수(죽곡면 동계리·35), 조○○(죽곡면 봉정리·40), 소광순(석곡면 이파리·25), 신순록(석곡면 이파리·40), 신도익(목사동면 광도리·40), 이성일(목사동면 신전리·연령불상), ▶순천출신(4명) : 백낙선(순천군 황전면 별당리·40), 박춘섭(순천군 황전면 모전리·25), 정궁구(순천군 서면 학구리·25), 조명근(순천군 서면 학구리·30) ▶구례출신(1명) : 최명서(구례군 산동면 분수동·40) ▶남원출신(11명) : 이평국과 아들형제(남원군 주전리·30/·27), 임영주(남원군 ○○면 이실리·25), 임기주(남원군 ○○면 이실리·35), 주화수(남원군 ○○면 주이목리·30), 김○○(남원군 두동면·30), 하○○(남원군 두동면·30), 김○○(남원군 ○○면 오수리·25), 윤○○(남원군 ○○면 일광리·30), 박○○(남원군 ○○면 도구리·27), 김해수(남원군 ○○면 평모리·35), 김문삼(주소불상·40)

곡성일대에서 활약한 항일의병 36인 명부 중 일부, 당시 일본경찰의 보고서(1908년) 문건에 의하면 "곡성군 목사동면 구룡리 출신 배준필 부자는 같은 마을 양보신(45)과 오지면 압록리 배재용(30), 석곡면 창기리 신용섭(20), 순천시 황전면 백낙선(40), 구례군 산동면 최명서(40) 등과 함께 지리산 일대에서 일제와 맞서 싸웠다. 남원출신 의병장 이평국 3부자(父子)는 1907년 남원에서 의병 봉기 후 항일투쟁을 펼쳤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의병진을 구례군과 경남 하동군 등으로 이동 활동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곡성군 목사동면 효대마을 인근으로 의병진을 이동 일제와 맞서 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문건에 기록된 36명의 항일투사는 충남의병장 김동신, 순천의병장 조서화, 곡성의병장 노인선, 신정우, 이성일과, 입면 강사과, 담양 고광순·고광문 형제, 하동 박인환(박매지), 박인식 형제 등과 1907년 초부터 지리산 일대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일제 치하에 있던 곡성·구례경찰서와 하동군청, 우편취급소 및 일본군 수비대 본거지 등을 습격하며 일제에 큰 타격을 가했다.

이번 문건과 관련 정재상 소장은 "곡성지역은 조서화, 노인선 의병장을 중심으로 호남에서 항일 전쟁이 가장 치열했던 곳 중의 한 곳이다"며 "이번 문건은 곡성 군민들이 항일 투쟁에 대거 참여했다는 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이다"라고 말했다.

경남독립운동연구소, 지리산권 우리문화 연구소장 정재상.

광주 3.1운동 주도 곡성출신 김필호 여사 등 19명 정부포상

광주 3.1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른 곡성 출신 여성독립운동가 김필호(金弼浩 1902~?), 옥과면 옥과리, 광주수피아여고 재학) 선생과 완도 황오봉(완도읍), 나주 김영기(봉황면), 순천 황맹석(매곡동), 광주 김정수(광산구) 선생 등 19명이 3.1운동 100년 만에 경남 하동군의 재야사학자 정재상 경남독립운동연구소장의 노력으로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정부 서훈이 추서되었다.

국가보훈처가 밝힌 광복절 정부포상자 명단에 의하면, 광주3.1만세운동에 참여한 애국지사 19명의 독립유공자가 포상을 받는다. 이중에 전남출신 10명, 광주출신이 9명이다. 이는 한 지역 독립운동 포상자로서는 이번 광복절에 광주3.1독립운동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번 정부포상과 관련 경남독립운동연구소 정재상 소장은 지난 2009년 국가기록원에서 발굴·서훈 신청한 광주3.1만세운동 참여자 19명이 광복절 정부포상자에 포함 됐다고 밝혔다. 정 소장이 서훈 신청한 광주 3.1독립운동가는 2009년부터 2019년 3월까지 20명이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또 이번에 19명의 독립운동가가 포상함으로써 정소장이 발굴한 광주3.1만세운동 독립유공자는 39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서훈은 광주출신 김정수(남구 대촌동) 선생이 건국훈장 애족장을, 전남출신 김영기(나주시 봉황면) 선생 등 8명이 건국포장을, 김필호(女, 곡성군 옥과면), 황오봉(완도군 완도읍) 선생 등 10명이 대통령표창을 각각 추서 받았다.

광주3.1만세운동은 1919년 고종황제의 국장을 보기 위해 서울에 갔다가 만세운동을 목격한 김철 선생 등이 3월 5일 광주로 돌아와 만세운동의 광경과 시위 정황을 청년·지역 유지들에게 전파해 시위가 일어났다. 거사 일은 당초 광주 부동교(광주 동구 불로동과 남구 사동을 잇는 다리) 아래에서 큰 장이 열리는 3월 8일로 예정됐다. 하지만 독립선언서 등사와 태극기 제작 등을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소식을 은밀하게 알리는 데 시간이 부족해 작은 장이 열리는 3월 10일로 연기했다.



승일학교·수피아여학교·광주농업학교 교사와 학생들은 장터에 모인 사람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줬다. 당일 오후 3시가 되자 누군가 큰 태극기를 높이 들어 독립 만세를 외쳤고, 장터에 모인 1천여 명의 시위 군중은 동시에 독립 만세를 연창하며 시장 안을 행진하기 시작했다. 양림동 쪽에서는 기독교인과 승일학교, 수피아여학교 학생들이 광주천을 따라 만세를 부르며 시위행진을 했고, 북문 쪽은 광주농업학교 학생과 시민들이 맡았다. 시위행진은 오후 5시까지 시장에서 읍내를 돌아 경찰서 앞까지 이어졌고, 시위대 기세를 눌러 어찌할 바 몰랐던 일본 헌병과 경찰은 대열을 정비해 시위대를 체포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일로 주동자 김강, 김철, 홍순남(경남 하동군 하동읍 수피아여학교 학생) 등 가담자 대부분이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출처/담양곡성타임스 장명국 記者

“순국선열들의 숭고한독립정신 기억해요”

3·1운동 100주년 기념,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 개최

2019.3.1. 곡성군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곡성을 일원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3·1운동 기념공원에서 100주년 기념식을 갖고 국민의례와 헌화 및 분향,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만세 삼창 등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이어서 곡성군 3·1운동을 주도했던 백당 신태운 선생에 대한 시비(詩碑) 제막 행사와 시낭송을 가졌다. 또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곡성을 시가지를 거쳐 곡성군청 광장에 이르는 시가행진을 통해 그 날의 피맺힌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을 재현했다.

특히 시가행진은 지역 주민들의 자진 참여로 치러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100년 전 온 국민이 피로 지켜낸 역사를 앞으로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로 곡성군 3·1운동의



발상지인 곡성중앙초등학교 학생은 물론 중·고등학교, 주민들이 대거 시가행진에 참여했다.

곡성군 자체는 군청사와 11개 읍·면사무소에 100주년 기념 엠블럼과 슬로건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사를 홍보하여 우리 고장 곡성 출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군민들이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독립정신을 기억하고 그 가치를 기리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일보 대표 김내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곡성 기념식

우리 곡성은 4년전 군민들의 뜨거운 참여로 '곡성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했다. 그 마음을 다시 모아 2019년 8월 14일 광복절 전날, 곡성교육희망연대(대표 박응두) 주관으로 제 2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기념식을

가졌다. 곡성교육희망연대 회원을 비롯 전라남도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균, 곡성군의회 부의장 조대현, 심인식, 김을남 의원과 곡성사회단체, 그리고 여러 곡성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엄숙히 진행됐다. 기림식은 곡성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박응두 (전) 곡성평화의 소녀상 건립지집행위원장의 사회로 묵념과 헌화, 아베정권의 역사, 경제침탈에 대한 규탄 퍼포먼스, 개인별로 준비한 규탄 피켓을 들고 위안부 피해자의 한맺힌 뜻을 기렸다.

세계 위안부 기림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매년 8월 14일이다. 2017년 12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전까지 민간에서 진행돼 오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성운동가 김학순(金學順, 1924년 10월 20일 ~ 1997년 12월 16일)**은 17세에 베이징에서 일본군에게 끌려간 것을 계기로 일본군 성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다. 위안부 피해자로서 1991년 대한민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하고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인물이다.



곡성군문화원 팀장 배숙영

일제강제징용 15세소녀 국내공장탈출기

최초공개(육필원고)

일제강제징용 부부 고 김진직 장수옥 국란4란 피해 슬픈연가

국권상실 분단조국 비극의 현장 증언 어느 할머니의 일제강제징용 국내 공장탈출 육필수기가 ‘광진의 소리’에 입수되어 국내최초로 공개되었다. 마침 비극의 주인공 고 장수옥 할머니(증언기록당시 78세, 2005년 2월 21일, 강원도 양구군 동면 후곡리.)의 자녀 한 분(장녀 김미경)의 도움으로, 국권상실 ‘일제강점기 조선처녀들 국내 일본 군수공장 강제공출상황 육필역사 증언’을 통해 그 어둠속에 묻혔던 진실이 78년만에 햇빛을 보게 되었다. 당시 첩첩산중 강원도 산골 오지마을까지 동네 구장을 앞세운 일제 순사들의 민족강탈, 조선남자 강제징용(당시 마을어른들은 ‘조선사람 씨말리기’로 표현), 14세~20세 조선처녀들의 정신대공출사냥, 국내의 일본군수공장노동자 강제동원 등 야만의 짐승 같은 잔학상을 그대로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해방후 인연이 되어 결혼한 남편도 일제강제징용자였다.



남편 고 김진직 씨(2004년 작고)는 일제강제징용으로 일본대판의 제강 공장에 끌려갔다. 그러나 해방 후 고국 양구는 38선 이북이라 북한 점령지였다. 한국전쟁 휴전 무렵엔 북한 점령지역이던 양구군은 수복지구가 되어 춘천, 원주 등 피란민수용소 청년대장, 경비대장 등으로 활약하며 지역 군단을 방문하여 양구군의 안정적인 수복정착 계획수립을 촉구하고, 향후 양구군청과 주요 기관의 입지 자리를 자문하는 등 양구군 수복창설의 애국적인 선구자였다.

출처/광진의소리 유윤석 기자

곡성문화원 문화유적 답사 계룡대·대전현충원 견학

대한민국 국군의 충의·자·인·용의 장엄한 호국문화의 성지 계룡대

2019년 7월 18일, 무더운 폭염을 밀어내는 견학 날이지만 하필 달갑지 않은 기상에보 속에서 우리 문화원 110여명 회원은 먹구름을 뚫고, 대전광역시에서 북서쪽으로 25km 떨어진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산 기슭에 자리 잡은 육군·해군·공군 3군 통합기지의 계룡대에 오전 10시경 당도했다.

계룡은 예로부터 풍수지리적으로 산·수 태극, 음양 화합의 길지로 알려져 조선의 새 도읍지로 정해 1년 여 동안 대궐공사를 하였던 명승지로서 당시의 신도내 대궐 주초석(지방유형 제 66호) 주춧돌이 문화재로 남아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 계룡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충청도 사람들의 터전 계룡시는 2003년 9월 19일 시로 승격되어 충남 동남부의 경제·문화·관광의 중심도시이다.



계룡대는 전략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군사적·사회적 측면을 고려해 총 면적 900만 평의 부지위에 1983년부터 추진하여 1989년 7월 육군본부와 공군본부가 입주한 뒤, 1993년 6월 해군본부를 이전하여 3군의 새로운 통합기지가 되었다. 주요 시설로는 팔각형의 건물과 같은 모습의 지하 3층, 지상 5층의 오각 건물이 있고,

또 한민족의 번영과 약진을 상징하는 통일탑을 비롯해 군인가족들을 위한 주거시설, 학교·병원·백화점·할인점·체력단련장(골프장) 등 각종 복지 및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한민족의 번영과 약진을 상징한 통일탑! 민족의 소원 평화통일 기원

우리 문화원 일행은 맨 먼저 계룡대 대강당과 육군기록물 전시관으로 이동하여, 계룡대 홍보영상을 관람 청취하고 육군 기록물 전시관을 견학했다. 이어서 명예의 전당에서 전시물을 견학한 후 계룡대 근무 지원단 장병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어르신들께서는 “내가 1955년 군대생활을 했는데 그 때의 식사 메뉴는 물론 병영생활이 하늘과 땅 사이였다”고 오순도순 속삭이는 모습이 너무도 흐뭇하기 짝이 없었다. 점심을 마친 후 해설사의 자세한 안내를 받으며 두루 영내를 견학하였다. 민족의 번영과 약진을 상징한 통일탑(높이36m)이 우리 일행을 반겨주었고, 우리는 모두 민족의 소원인 평화통일을 기원했다.

남자들은 “군 생활을 다 해봤지만 계룡대가 이렇게 중요하고 멋진 곳인지 생전 처음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소리가 예서저서 들려왔다. 우리민족의 번영과 약진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통일탑 주변에는 전투기·전차 등의 무기가 전시되어 있었다. 안보교육장에서 군

복장을 갖추고 BB탄 사격, 페인트볼 건 사격, 나라사랑 퀴즈대회 등 여러 가지 참여체험을 했다. 특히 여자 분들은 “우리가 언제 군대도 안가 봤는데 이런 곳을 와서 체험을 한다 말이어...” 하면서 어린이 마냥 마구 흥겨워했다. 특히 충·의·지·인·용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 철통같이 국가를 보위하고 승리의 영광을 쟁취하려는 안보의 표상인 국군의 중추 도시 계룡대! 대한민국 3군 문화와 계룡산의 청정 환경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살기 좋은 곳으로 도약하는 매력이 깃든 계룡대를 견학하게 되어 국방의 공고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다.

순국선열의 얼을 기리는 곳, 국립 대전 현충원

시대적 요청에 온 국민이 부응하는 일제상품 불매운동에 계기가 조성된 차제인지라 저마다 애국의 의미를 가슴 깊이 여미고 다음 견학지에 당도하였다. 이곳 대전현충원은 조국의 수호와 국가 번영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나라에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고이 잠들어 계시는 민족의 성지이다.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국립현충원은 안장 능력이 한계에 이르러 1979년에 착공하여 1985년에 완공하였다고 한다.

여기 현충원은 100만평에 달하는 넓은 부지 위에 묘역은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장병, 경찰관 및 일반 묘역으로 잘 조성되어 있었다. 주요 시설물로는 참배를 드리는 현충탑과 현충문이 있고, 영결식과 호국영화 상영을 위한 현충관, 각종 호국사진과 유품을 전시한 호국관, 그리고 군 전투 장비를 전시한 야외전시장을 견학했다. 대전 현충원의 안장 능력은 6만 3,250기이며 한국의 전통미와 현대 감각의 조화, 자연경관의 최대 보존, 전 묘역의 호국공원화를 기본 방향으로 잡아 조성한 곳이라 한다.

조국을 위하여 숭고한 희생 및 공헌하신 분들의 영혼이 모셔져 있는 국가보훈의 성지, 민족의 성역에 도착한 우리 문화원 회원 일행은 곧바로 현충탑과 현충문 앞에서 참배를 드리고 경내를 견학한 뒤 귀향길에 올랐다. 오늘 계룡대 답사에 참여한 우리 곡성문화원 회원(110명) 모두는 국가안보의 중심센터인 계룡대와 현충원 견학을 통해 민·관·군 소통의 활성화와 대군 신뢰향상 및 국민안보의식이 함양되고 크게 고취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해 본다. 다행스럽게도 장대비가 온다는 기상청 예보가 무색하게 된 흐린 날씨 덕분에 동참하신 회원 모두의 복 많은 견학이 공유되어 흐뭇했다. 자상한 안내와 봉사로 알찬 견학을 추진해 준 곡성문화원 집행부의 노고에 찬사를 드리며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한다.

곡성문화원 회원, 편집인 빙신호





제20회 효녀심청

전국 어린이 예술 공모전
2019. 09. 16 ~ 10. 16
발표 11. 01(금)



글짓기 부문

- 대 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금 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상
- 은 상 |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전라남도지사상
- 동 상 | 전남문화원연합회장상, 곡성군수상
- 장 려 상 | 곡성문화원장상

그림 부문

- 대 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상
- 금 상 |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 은 상 | 전라남도지사상, 전남문화원연합회장상
- 동 상 | 곡성군수상, 곡성문화원장상
- 장 려 상 | 곡성문화원장상

주 최 | 곡성문화원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원연합회, 전라남도, 곡성군

응모자격 | 전국 초등학교 재학생

응모부문 | 글짓기부문 _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외 다수
그림부문 _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상 외 다수

공모주제 | 효(孝)

공모요령 | 완성된 작품 1부 (형식 규격 제한 없음)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 우편소인까지 유효)

접수기간 | 2019년 9월 16일(월)~10월 16일(수)

접 수 처 | 57535 전남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5 (곡성문화센터 3층 곡성문화원 사무국)

발 표 | 2019년 11월 1일(금)

문 의 처 | 곡성문화원 홈페이지 (<http://www.gs-culture.or.kr>)

곡성문화원 사무국 TEL (061)362-0890, FAX (061)363-7300



곡성문화원장
고광운



입면농협조합장
성한식



곡성심청로타리클럽회장
유남숙



곡성군재향군인회장
조희용



곡성바르게살기협의회장
권수만



곡성군월남참전자회장
김의진



곡성군여성단체협의회장
한희숙



자유총연맹곡성군지부장
서 호



곡성군장애인협회연합회장
이기욱



푸른곡성21 대표
박정수



중소기업이업총회곡성군지회장
정상호



곡성군의용소방대연합회장
박시열



곡성향교 전교
임중두



한국외식업중앙회곡성군지부장
김종석



곡성군119 동우회장
김용일



곡성군축협조합장
박왕규



곡성군농촌지도자 협의회장
정종기



곡성군상의군경회장
최태호



곡성군산림조합장
이국섭



곡성군 농업경영인연합회장
한철우



곡성군해병전우회장
조대현



곡성농협조합장
주성재



곡성라이온스클럽회장
강대석



곡성JC 청년회장
장영국



석곡농협조합장
한승준



곡성여성라이온스클럽회장
김을남



곡성군리장단 단장
최종철



옥과농협조합장
구정훈



곡성로타리클럽회장
진호균



곡성군입업후계자회장
박철규



곡성군
사회단체협의회

